

퇴직연금, 안전 버리고 수익으로... ETF에 뭉치돈 몰린다

수익추구형 DC형·IRP로 머니무브 은행·보험 비중 줄고 증권사 증가 미래에셋 적립액 42조로 급성장

#.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김모(36)씨는 최근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에 국내 코스피와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담았다. 김씨는 원래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선택했는데,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방향을 틀었다. 김씨는 "주변 지인들의 권유도 있었지만, 상승장에서 나만 '벼락 거지' 될 것 같은 불안으로 원리금 보장을 포기하고 수익률을 쫓기로 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자금이 '안전제일' 버리고 수익률을 쫓고 있다. 은행 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서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추구형(원리금비보장)으로 뭉치돈이 움직이는 '머니무브'가 확산하고 있다.

◆내 퇴직연금은 내가 책임진다

22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 대비 15.1% 증가한 496조8021억원으로 집계됐다. 확정급여형(DB)이 228조945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가입자가 직접 굴리는 확



서울 여의도 전경.

/메트로 DB

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지난해 IRP와 DC형 적립금은 전년 대비 각각 약 32조원, 23조원 급증하며 DB형(14조원)의 성장 폭을 크게 웃돌았다.

2020년 18%에 불과하던 증권사 비중은 2025년 32%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은행 비중은 68%에서 59%로 9%포인트 하락했다. 보험업권 비중도 14%에서 9.1%로 낮아졌다. 적립금 증가율도 증권사가 26.5%로 가장 높았으며,

은행과 보험은 각각 15.4%, 7.4%로 집계됐다.

연금 투자의 경우 노후 소득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안전성이 중요한 요소였지만, 이제는 투자자들이 더 공격적인 투자를 위해 자금을 옮기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미래에셋증권의 올해 1분기 퇴직연금 적립액은 42조4411억원으로 늘어났다.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 40조원대 적립액은 미래에셋증권

이 유일하다. 전체 금융권 유입액 13조원 중 33%(4조원)가 미래에셋증권 탕했다.

◆퇴직연금 수익률 높이기 나섰다

수익률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자사에 가입한 퇴직연금 계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퇴직연금의 확정기여형(DC·가입자가 적립금을 스스로 운용해 성과도 챙기는 방식)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실적배당형의 비율은 72%로 원리금 보장형(28%)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2020년 말에는 원리금 보장형이 45.2%였고 실적 배당형이 54.8%였지만 5년 만에 판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실적 배당형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대신 운용 실적에 따라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으로 상장지수펀드(ETF)나 펀드,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유형이고, 원리금 보장형은 예금이나 저축은행, 국채 등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4분기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DC형 적립금 잔액이 16조2903억원으로 전체 4개 사업자 중 1위다.

수익률 중심의 운용은 특정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경제 활동의 주축인 중장년층이 먼저 변화를 이끌고 있다. 올해 1월 말 기준 DC·IRP형에 가입한 40대 가입자의 실적 배당형 비율은 75.3%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고, 50대 역시 72.8%에 달했다. 2020년 말 당시 40대(62.3%)와 50대(55.4%) 비율과 비교하면 크게 뛰어오른 수치다.

20·30세대도 비슷했다. 30대는 69.6%, 20대는 57.1%였다. 2020년 말 30대(58.1%), 20대(44.5%)와 비교하면 뚜렷한 변화다. 특히 이들의 자산 10건 중 6건은 주식형 ETF 등 위험자산에 쏠려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와 연봉제 확산으로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되는 DB형의 매력도 줄어들고 있다"며 "반면 DC형·IRP는 ETF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이 늘어나 가입자가 직접 운용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분간 사용자 중심의 DB형에서 가입자 중심의 DC형·IRP로 자금 이동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AI, 활용이 핵심... 피지컬AI 투자, 병목해소 기업에 주목”

삼전·하닉 임원 173명 주식가치 10억 넘겼다

NH-Amundi자산운용 전략 간담회 “전 산업 밸류체인 변화로 접근해야”

NH-Amundi자산운용이 피지컬AI 시대의 투자 방향으로 '병목 해소 기업'과 'AI 활용 기업'을 제시했다. 단순히 AI 기술을 만드는 기업보다 실제 산업에 적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핵심 투자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NH-Amundi자산운용은 2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피지컬AI 투자 전략 간담회'를 열고 관련 투자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피지컬AI를 단일 테마가 아닌 전 산업 밸류체인 변화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최동근 ETF운용팀장은 "피지컬AI는 인간의 피로·부주의·인지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이라며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은 시작일 뿐, 제조·물류·헬스케어 등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



최동근 ETF운용팀장이 피지컬AI 투자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NH-Amundi자산운용

했다.

그는 피지컬AI 투자 유망 분야로 ▲에너지 ▲광통신 인프라 ▲반도체 ▲AI 모델 ▲어플리케이션 등 5대 테마를 제시했다.

특히 에너지와 광통신은 AI 인프라의 핵심 병목으로 지목됐다. 최 팀장은 "AI 연산에 필요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에너지 인프라 확보 자체가 경쟁

력"이라며 "추론형 AI 확산으로 데이터 대역폭이 병목이 되면서 광통신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역시 구조적 성장 국면에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설비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메모리뿐 아니라 CPU, 아날로그 반도체로 확산되고 있다"며 "전력 효율을 위한 전력반도체도 중요한 투자 대상"이라고

말했다.

AI모델과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는 'AI를 잘 쓰는 기업'이 핵심 투자처로 꼽혔다. 최 팀장은 "단순히 AI를 잘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AI를 사업에 적용해 수익성을 개선하는 기업, 즉 'AI 하이퍼 어답터'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 제조업 기업들이 피지컬AI 시대 핵심 부품사로 재탄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향후 투자 전략 키워드로 '제국주의 2.0'도 제시됐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원자재와 핵심 기술이 무기화되면서 대만·일본 등 핵심소재 기업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HANARO 글로벌피지컬AI 액티브 ETF'는 상장 이후 약 1년간 127% 수익률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나스닥100 대비 78%포인트 높은 성과를 거뒀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작년 10월 31명서 5배 이상 증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급등 영향으로 두 회사 임원의 주식 재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식평가액이 10억원을 넘긴 비오너 임원이 17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오너 임원 가운데 주식평가액이 10억원을 넘는 인원은 총 1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0월 조사 당시 31명과 비교해 6개월 만에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 주가는 9만8800원에서 21만9000원으로 120% 이상 상승했고, SK하이닉스 역시 51만원에서 122만4000원으로 약 140% 급등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 113명, SK하이닉스 60명의 주식평가액이 10억원을 넘었다. 삼성전자는 6개월 전 17명에서 96명이 늘어나며 6배 이상 증가했고, SK하이닉스도 14명에서 60명으로 4배 넘게 확대됐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은 보유 주식 가치가 약 215억8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이 132억5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SK하이닉스에서는 곽노정 사장이 103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오너 일가의 주식 재산은 조 단위로 나타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전자 주식만 약 21조3000억원 규모를 보유하고, 이어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15조9823억원),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9조9807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9조1423억원)이었다.

/신하은 기자

삼성운용 '美S&P500' 수익률 60% 달성

100개 핵심 종목 골라 전략 투자

삼성자산운용은 상장 1주년을 맞은 'KODEX 미국S&P500액티브'가 수익률 60.3%를 달성, S&P500 지수 대비 17.8%포인트더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ETF의 1개월 수익률은 8.4%, 3개월 9.8%, 6개월 15.6%로 S&P500액티브 ETF 상품 중 가장 높았다.

월별로 보면 지난 1년간 이 ETF가 S&P500 지수보다 수익률이 높았던 것은

9개월에 달했다. 지수보다 높은 성과를 기록한 월의 평균 초과수익은 +1.80%포인트를 기록한 반면, 지수보다 못한 수익률을 기록한 월의 평균 하회성과는 -0.51%포인트로 제한됐다.

S&P500 지수는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으로 불리는 대표지수다. KODEX 미국S&P500액티브는 미국 S&P500 지수를 구성하는 핵심 100여개 종목에 압축 투자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섹터와 종목 투자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



해 운용하는 액티브 ETF다.

삼성자산운용은 해당 ETF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데는 몇 가지 전략이 유효했다고 설명했다. S&P500 지수는 총 500개 종목으로 이뤄져 있지만, 이 상품은 약 100개의 핵심 종목만 골라 투자했다. 실질적으로 수익률에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은 상위 종목이기에 불필요한 비중을 줄이고 효율을 높였다. 또한, 관세 갈등, 금리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 경제 이슈가 발생하면 투자 비중을 조절해 위험을 관리했다는 부연이다.

한동훈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앞으로도 미국 S&P500지수에 투자한다는 기본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특정 종목 중심의 과도한 매매를 지양하고, 안정적으로 꾸준한 초과 수익을 추구하여 장기 투자에서 더 큰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